3. 시놉시스

다음 주까지 원고를 써서 보내달라는 메일이 도착한다. 우주는 30분, 1시간이 지나도 한 줄도 쓰지 못한 채 멈춰있다. 계속 써지지 않는 글에 우주는 머리를 뜯으며 괴로워한다. 결국 침대에 누워 눈물을 흘리고 만다. 우주의 방은 각종 글쓰기 대회에서 받은 금색의 트로피와 가지런히 펼쳐놓은 상장이 가득하다. 우주는 통장에 들어가 잔고를 확인한다. 65만원. 그녀의 전재산이었다. 우주는 한숨을 쉬고는 구인구직 사이트에 들어가 각 회사의 자격요건을 확인한다. 그러고는 30년째 글쟁이에게 무슨 경력이 있겠냐며 자조한다. 그때 문창과 동기 김고완. 이라는 이름으로 카톡이 하나 날라온다. 우주의 모교에서 시간강사를 구하고 있는데 할 생각이 있느냐고 말이다.

우주는 거절한다. 이미 자신은 작가라는 직업에 대해 흥미를 잃어버린지 오래였다. 하지만 생각보다 쏠쏠한 시급에 마지못해 하기로 결정한다. 동기는 우주가 한 학기 동안 일주일에 2시간 씩, 작법 수업을 하면 된다고 일러주었다. 우주는 당장 노트북을 켜 “작법이란 무엇인가?”라는 주제로 피피티를 만들기 시작한다.

우주는 자신의 모교 강의실 앞에 도착한다. 우주는 잔뜩 긴장했지만 괜찮다며 자신을 다독이고는 강의실로 들어간다. 우주는 특유의 쾌할한 성격으로 아이들을 대하고 아이들도 이런 선생님을 편하게 대한다. 그때 한 학생이 우주에게 행복하냐고 묻는다. 우주는 대답을 하지 못한다. 그리고 이내 뛰쳐나간다. 그렇게 길거리를 황망하게 배회한다. 몇 분 뒤, 선배에게 전화가 오고 우주는 지금 바로 들어가겠다고 답한다. 우주는, 빠져나올 수 없는 늪에 갇힌다.